

# 첫돌 맞은 국제상표출원

## ◀국제상표출원, 하나의 출원만으로 원하는 국가에 동시에 상표 출원▶

**하**나의 출원만으로 원하는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상표출원제도가 지난 4월 10일로 국내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국제상표출원제도는 해외상표출원 및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정한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62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기업은, 직접 외국에 출원할 필요 없이 하나의 출원서에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그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년간 국제상표출원제도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출원한 건수는 총 136건으로 평균 7.6개국을 지정(통상적인 해외상표출원 1,038건에 해당)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독일 순으로 국제출원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해외진출 대상 국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마드리드의정서가 가입국 61개국 중 거의 대부분인 57개국에 대하여 출원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다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을 지정한 국제출원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MIDAS", "E-LAND" 상표가 북한을 지정하여 출원되었는바, 북한 역시 마드리드의정서가 가입국이므로 제도상 출원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체제인정 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국

민의 출원서 접수를 거부하여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우리 국민의 상표가 북한에서 등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출원된 건수는 3월 중순 현재까지 2,174건으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베네룩스, 이탈리아, 일본 순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각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그 나라가 어떤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기계기구, 스위스는 시계 등 귀금속류, 프랑스는 화장품류, 이탈리아는 의류, 피혁 제품류, 일본의 경우는 기계기구, 의류에 대한 출원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마드리드의정서가 '03년 11월에야 시행됨으로써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출원 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비율이 미국 전체 출원 평균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미국인의 출원이 조만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 중 하나인 미국이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였고, 유럽공동체(EC) 또한 오는 9월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마드리드의정서가 명실공히 보편적인 국제상표출원 제도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효율적인 해외상표관리전략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 국제상표출원제도,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총 62개국 운영

# 한국, 미국 내 특허출원 제4위로 상승

◀우리 나라 국민이 2003년도 미국에 출원한  
특허출원건수는 총 7,071건▶

**특**허청은 우리나라 국민이 2003년도 미국에 출원한 특허출원 건수는 총 7,071건으로 미국내 외국인 특허출원 순위에서 전년도 제 6위에서 제4위로 부상하였다고 밝혔다.

미국특허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도 미국내 외국인 특허 다출원 국가는 일본(45,835건), 독일(14,415건), 대만(10,883건), 한국(7,071건), 캐나다(6,073건), 영국(5,913건) 순으로,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영국을 제치고 2002년 제6위에서 제4위로 두 계단 상승하였다. (2000년 7위, 2001년 7위, 2002년 6위)

한편, 2003년도 미국내 외국인 특허등록에서도 한국이 총 4,198건으로 일본, 독일, 대만, 프랑스에 이어 제5위로 부상하였다. (2000년 7위, 2001년 7위, 2002년 7위)

이는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최대 기술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개발기술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 2003년 미국 특허출원 10대 국가

순 위	국 가	출원건수	2002년도 순위 (건수)
1	일 본	45,835	1(61,259)
2	독 일	14,415	2(21,657)
3	대 만	10,883	3(13,761)
4	한 국	7,071	6(7,757)
5	캐나다	6,073	5(7,967)
6	영 국	5,913	4(9,238)
7	프랑스	5,061	7(7,434)
8	이태리	2,424	8(3,336)
9	이스라엘	1,915	9(2,737)
10	네덜란드	1,754	10(3,074)



## 고래작살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인다.  
지금은 국제조약상 금지되어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래사냥은  
황금어획이었다. 이 봄을 타고  
진짜 황금을 낚은 사람은 고래사냥용  
작살을 발명한 일본 도쿄대학의  
헤다교수.

2차대전중 구축함에서 물밑 잠수함을 공격할 때 사용한 어뢰를 본따서 만든 이 작살은 뾰족한 끝을 잘라내 평평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전쟁에 패망한 일본이 재기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을 무렵, 헤다 교수의 연구는 시작되었다. 섬나라인 일본이 부가가치가

높은 고래 사냥을 위해서는 작살을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연구한 것이다. 기존의 작살은 끝이 뾰족해서 고래에 대한 명중률이 낮았다.

결국 작살을 발사하는 포경 포의 힘을 늘리고 작살 끝을 평평하게 하여 성공하였다.

# 멋있는 팔찌가 교통카드로!

◀팔찌에 IT기술이 접목, 그 기능이 다양화▶

**팔**찌에 IT기술이 접목되어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건강상태, 신상정보 등과 같은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인식하는 기능성팔찌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허출원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팔찌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이 주로 아름다운 무늬를 넣어 미적효과를 나타내거나 자석 돌기에 의한 지압 효과를 갖는 정도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같은 각종 정보가 저장되어 있거나 건강 상태 인식기능이 있는

초소형 칩을 팔찌에 내장시킨 후 입력된 정보의 출력, 생체상태의 인식, 저장된 정보의 판독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신분확인이나 건강상태의 체크 뿐만 아니라 버스요금의 지불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는 팔찌가 개발되어 우리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기능이 부가된 팔찌의 종류를 보면, 음성기록 및 재생장치가 내장되어 버튼을 누르면 미아나 치매환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한 신원확인용 팔찌, IC칩을 내장시켜 버스의 요금단말기에 갖다 대면 버스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교통카드 대응 팔찌, 체온이나 맥박 등의 측정센서가 내장되어 디스플레이부에 측정치가 표시되어 건강상

태를 알 수 있는 건강체크 팔찌, 2개의 팔찌를 서로 마주 끼면 소리가 나거나 발광하도록 한 커플 팔찌 등이 개발되고 있다.

기능성 팔찌와 관련된 국내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면 95년부터 2003년까지의 특허청에 출원된 건수는 총83건이고 그중 78건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며, 연도별로는 '95 ~ '97; 11건, '98 ~ '00;

29건, '01 ~ '03; 43건으로 이 분야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이들 출원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원확인 기능관련 출원이 48건

(58%)으로 가장 많고 건강체크 기능관련 출원이 15건(18%)이며 신용카드 기능관련 출원이 8건(11%)이고 기타 12건(13%)이다.

## 최근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인식하는 기능성 팔찌 개발, 이에 대한 특허출원도 증가

### 향후전망

머지않은 장래에, 생체인식코드 집적회로를 내장하여 개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위치 전송기를 내장하여 가족들이 집에서도 미아나 치매환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팔찌 등이 개발되어, 팔찌를 간단히 조작하는 것만으로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수집과 조작이 가능한 고도의 기능성 팔찌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만보기에도 웰빙 바람

## ◀◀종합 건강관리기능이 부가된 만보기 특허 출원 활발▶▶

**만** 보기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 '만보기'가 걸음수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소모되는 칼로리, 체지방량, 심지어는 맥박수까지 잴 수 있는 종합건강관리 제품으로 그 기능을 더해가며 이들에 관한 특허가 속속 출원되고 있다.

과거, 만보기 기술은 걸을 때 발생하는 신체의 진동을 감지하여 카운트하는 방법과 신발에 신호 발신기를 달아서 걸을 때 마다 발생하는 신호를 카운트하여 걸음수를 재는 기술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불고 있는 웰빙 바람을 타고 다른 건강보조기기의 발달과 함께,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만보기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특허 출원되고 있는데, 그 중 측정된 걸음수를 바탕으로 보행거리, 보행속도, 소비칼로리를 계산하는 기술은 기본이며, 최근에는 만보기에 체지방측정기나 감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체지방량, 비만도, 체수분량, 혈당 수치, 심장박동수 등 개인 건강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의 만보기가 출원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만보기에서 측정된 걸음수, 체지방량 등의 데이터를 건강관리 서

버에 전송하면, 이를 분석하여 운동량과 운동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종합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갖는 기기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성인을 기준으로 '체지방이 분해되기 위

한 가장 적합한 걸음속도는 6.4km/h', '하루에 운동으로 소비하여야 할 칼로리는 200 300kcal' 라는 등의 과학적 운동량 지표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만보기도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과학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종합적이며 편리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걸음수 측정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소모되는 칼로리, 체지방량, 맥박수까지  
잴 수 있는 종합건강관리기능이  
부가된 만보기 특허출원 활발**

**생각바꿔 발명하고 특허내어 보호하자**